



Untitled 1752, 2017, oil on canvas, 259.1x486.3cm_Detail Image

이광호 Lee Kwang Ho

October 12 ~ November 25, 2018

Johyun Gallery



Artist Studio

□ 조현화랑 _ 부산

전 시 명 : 이광호 개인전

전시기간 : 2018년 10월 12일(금) ~ 2018년 11월 25일(일)

전시장소 : [조현화랑]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71

개관시간 : 화~일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휴관)

전시담당 : 윤보람(010-2025-4737) / 주민영(010-2708-5161)

전시문의 : [조현화랑] T. 051.747.8853 / F. 051.742.8852 / E. info@johyungallery.com



▶ 작가 소개

이광호는 1967년 생으로, 199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1999년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1996년부터 다수의 개인전과 9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조현화랑(2018, 2011), 국제갤러리(2014, 2010), 창동 스튜디오 갤러리(2006) 등에서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2018년 부산시립미술관, 2017년 세종문화회관,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2013년 서울대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2012년 런던의 사치 갤러리, 전북도립미술관, 2011년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미술관, 2009년 프라하 비엔날레 등 다수의 미술기관의 그룹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한 바 있다. 2016년 아트센터럴 홍콩에서 솔드아웃을 기록하였으며, 해외 미술시장에서 많은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포스코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전시 소개

조현화랑에서는 10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 독보적 화풍으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이광호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1년(조현화랑 개인전), 2016년(홍콩 아트 센트럴, 조현화랑)에서 선인장 연작을 보여주었던 전시 이후 2년 만에 가지는 전시로써, 가시덤불과 습지를 주제로한 신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사실주의적 회화로 잘 알려진 이광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재현으로서의 회화를 넘어선 촉각적, 감정적 언어를 부여한 새로운 환영과 느낌을 표출해 낸다. 찢릴 것 같던 메마른 가시들은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촉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촉촉한 습지는 거대한 자연 속 비밀의 화원을 찾은듯 때론 고요하고 낭만적이기도 하다. 마치 자연을 어루만지는듯한 감상을 하게 되는 이번 작품은 대상과 거리를 더욱 좁히고 관객을 자연 속으로 끌어드린다.

회화의 사유를 깊이 탐구하는 이광호 작가는 <Inter-View>, <선인장>연작으로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기반을 두지 않고, 주관적 해석과의 간극을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표현해왔다. 뚜렷한 피사체의 형태가 드러나는 인물과 정물을 2차원 캔버스에 오롯이 그 대상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려냈다면 풍경은 특정한 사물이라 할 수 있는 구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하고자 하는 확실한 존재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작가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 사물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포착한 <Inter-View>, 관능적이고 동물적인 촉각의 시각화를 극대화한 <선인장>, 촉각적 욕망을 활성화시킨 <풍경>은 회화적 완성을 위한 작가의 붓질 무게가 대상의 밀도로 전환되었다.

이광호 작가가 그리는 자연 풍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도시 공간과는 또 다른 미지의 신비로움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 범위보다 큰 현실의 '풍경'이라는 개념은 바라보는 이의 시선과 위치가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작가는 기존의 작업 방식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대상 속에 들어가 직접적인 감각인 촉각을 사용한다. 풍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감각뿐 아니라 빛, 냄새, 바람, 소리 등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것들이 다양한 정서로 작가에게 전달된다. 뉴질랜드의 초원과 습지를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들은 공간의 깊이를 표현했던 지난 작업보다 공간의 부피와 시선의 높이가 넓어졌다. 이러한 광대한 풍경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마치 창밖을 내다보듯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작품 속에도 관망하는 생명체인 '땡'은 이광호 작가의 풍경 속에 종종 등장한다. 여기서의 '땡'은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주체이며, 풍경 작품 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인 습지는 이름 모를 다양한 수풀들이 엉켜져 캔버스에 가득 메워져 묘사되어 있다. 각각의 화려한 색으로 어지럽게 얽혀 있는 수풀들로 인해 어느 곳 하나 숨 쉴 수 있는 시선의 틈이 없다. 다만 어떠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수면만이 우리의 시선에 여유를 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같은 듯 다른 두 가지 풍경의 모습이 각각 두 개의 공간에서 선보인다. 무수히 많은 나무 가지와 얽혀 있는 가시 돋친 녀굴의 숲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시에 상처 입을 듯 조금씩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움직이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이 끝없는 고요한 습지의 호수는 그 투명함에 오히려 가까이 다가게 된다. 특정 장소의 한 부분을 포착하여 단순히 형태의 윤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 느끼고 만진 감각을 캔버스에 표현하였다. 더욱 섬세한 붓질과 과감한 색감으로 인해 깊어진 이광호 작가의 촉각적 향유의 절정을 이번 전시를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Installation view >







□ 작품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Untitled 1679

2016

oil on canvas

259.1 x 387.8 cm



Untitled 1100

2017

Oil on canvas

130.3 x 162.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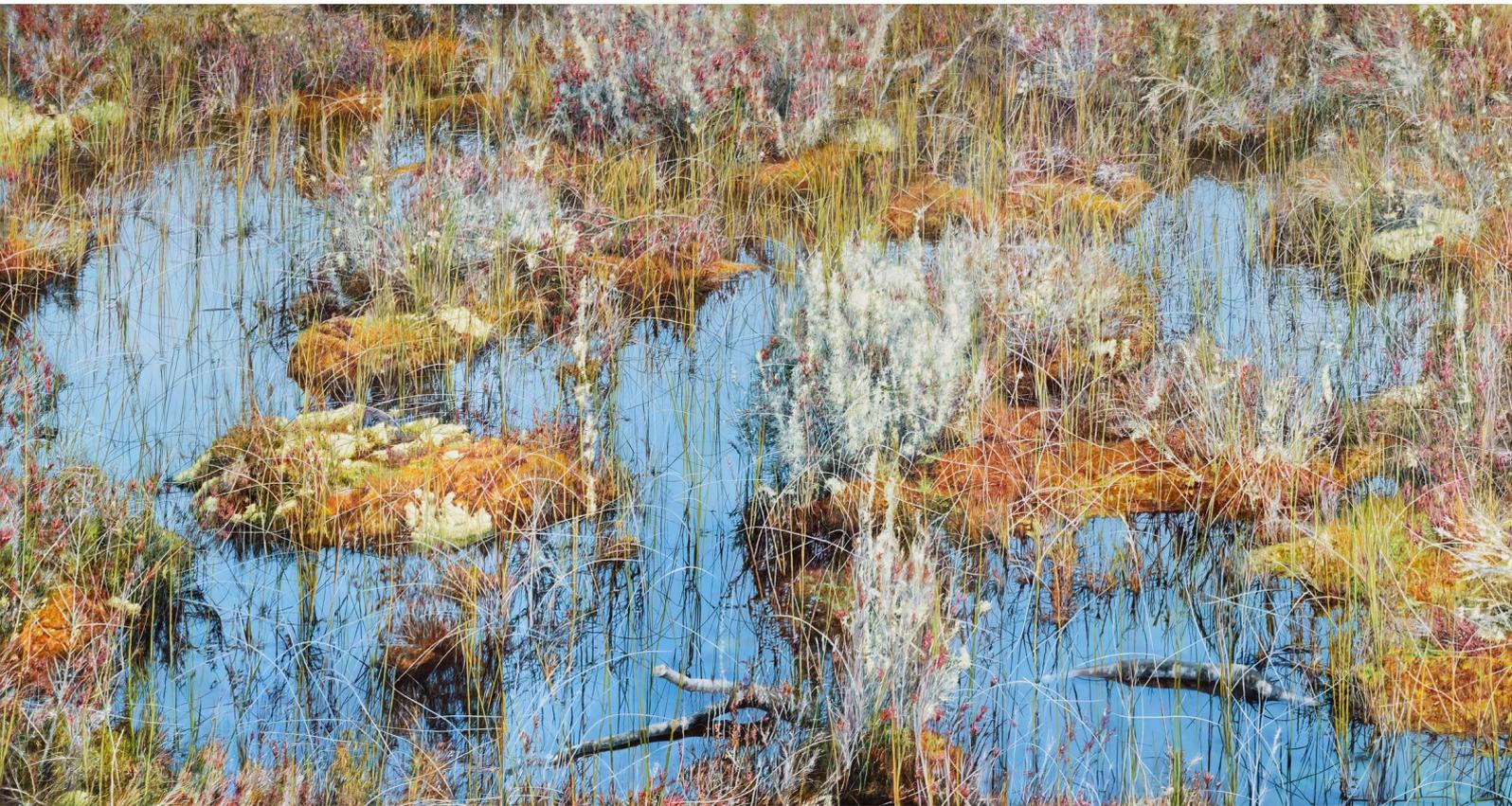


Untitled 2374

2017

Oil on canvas

130.3 x 162.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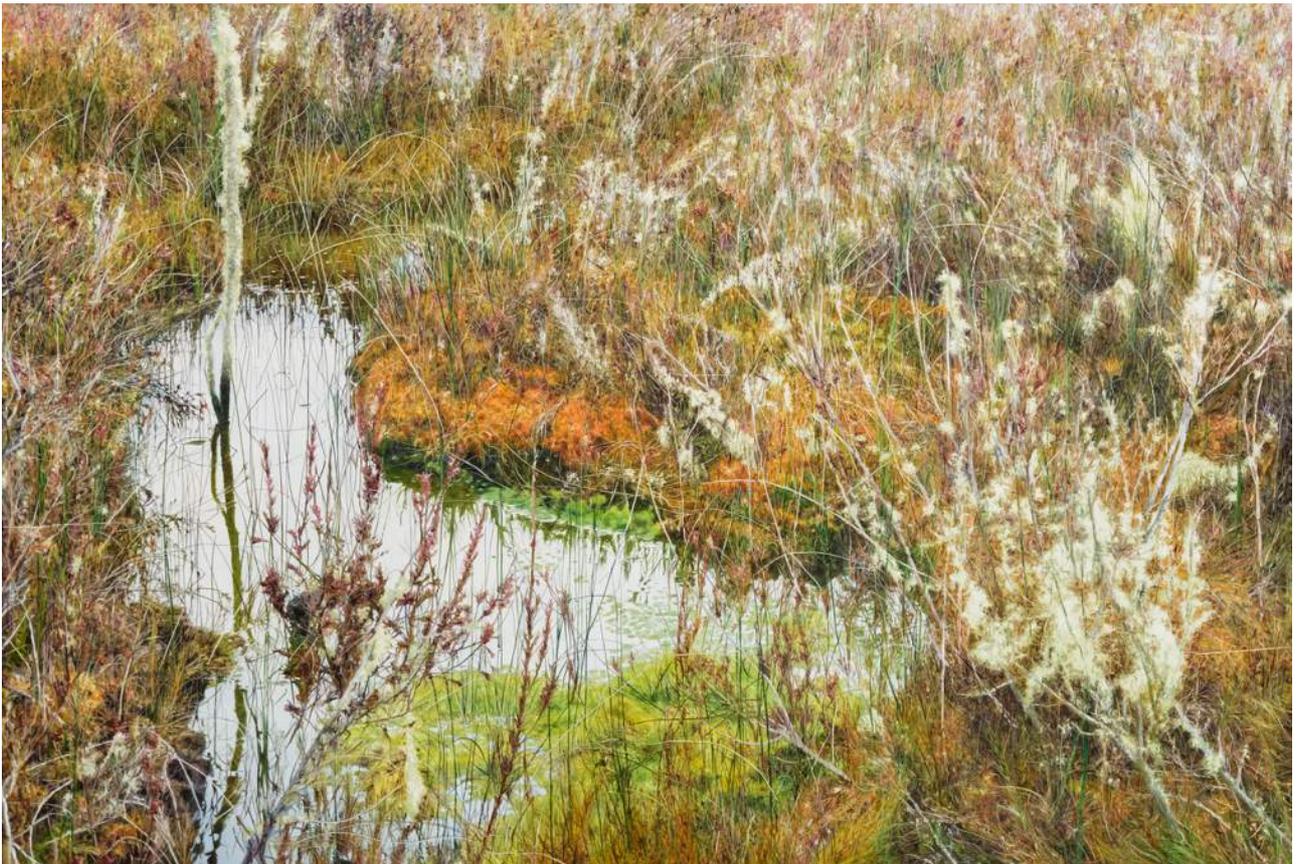


Untitled 1752

2017

oil on canvas

259.1 x 486.3 cm



Untitled 1742

2017

oil on canvas

130.3 x 193.9 cm



Untitled 1747

2018

Oil on canvas

193.9 x 259.1 cm

▶ 전시글

< 회화라는 현실 The Real in Painting >

정신영 (미술비평)

자연으로 가라, 그 무엇도 거부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 존 러스킨

이 독수리는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이곳에서 발견된 것인가?

- 지그문트 프로이트

한국 현대화단에서 구상화라는 범주는 꾸준히 대안적인 성격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각종 불평등을 고발하는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미술계열에 가려져 있으며, 그 전에는 포스트모더니티의 다채로움과 비엔날레형 스펙터클들의 이면에 있었고, 그 전은 영상, 그리고 6-70년대는 추상화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구상화라고 하면 표현주의, 민중, 일부 팝아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사실주의적 또는 자연주의적 화풍으로 좁힌다면 딱히 사조나 대표작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엄격한 아카데미즘에 입각해 수년에서 십 수년에 이르는 모델링과 음영기술의 취득을 미술가의 기초어건으로 삼아온 한국미술전공교육의 역사와는 어긋나게, 화단에 데뷔한 이후에도 진솔한 사실주의적 화풍을 지속하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고질적 병폐인 추상화 우월주의를 의심해 본다. 사대부 문인화의 딜레땅띠즘 선호의 결과인지 간판쟁이 멸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공들여 그린 풍경이나 정물화에는 허용되지 않는 모종의 '정신성' 이 단색 물감이나 몇 번의 붓질로 마무리된 추상화에는 어느 새 스며들어간다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듯하다. 20세기초 세계적인 모더니티의 강세, 1945년 이후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선전(善戰)과도 무관할 수 없는 국내 추상화의 약진은 서구현대미술에 동양식 '선(禪)' 사상을 걸친 제스처이면서 물감의 순수하게 물리적인 조건에 주목한 물질주의 등이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뛰어난 사실주의 작가가 드문 본질적 원인은 무엇보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어려움에 있을 것이다. 사진적 사실주의의 화가 척 클로스는 초상사진을 거대한 캔버스에 옮기는 자신의 작업의 길고 고된 과정에 대해 논하면서, 자신이 로버트 라이먼이었다면, 캔버스에 밀칠만 하면 작업이 완성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아그네스 마틴이었다면, 밀칠 위에 균등한 그리드(grid)만 그으면 작업이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작업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술제작에 있어서의 노동집약성에 대해 도덕적 잣대를 드리울 필요는 없지만, 사실주의화가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제작에 들어가는 노고의 부담 때문이다. 그에 보태 노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리는 능력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나 잘 그리는 능력도 갖추면서 척 클로스와 같은 인내와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야 사실주의화가가 될 기본사양을 겨우 충족하는 것이다.

사실주의의 또다른 어려움은 키치와의 간극에 기원한다. 아트페어에 가면 사실주의에서 트롱프뢰유로 전락한 유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미술시장에는 존재하지만 미술사에는 남지 않을 동어반복적 작품들은 대중을 매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지한 사실주의 화가들에게는 자신들의 방식을 퇴색시키는 부류로 경계해야할 형식들이다. 단순히 효과만을 추구하는 그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본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평면에 재현한다는 미술의 기본적 모순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태도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현실성과 그리고 있는 물리적조건의 현실성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알고리즘과도 같이 신경과 명령의 회로를 타고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의 눈이 보는 대상과 그의 손이 그려내는 대상 간의 계산과 타협, 반올림과 반내림의 반복, 궁극적으로는 눈과 손의 상호 설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작품으로 남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호의 근작들은 작가의 25년에 가까운 현실과의 치밀한 협상의 결과임을 여실히 하는 역작들이라 하겠다. 그가 인물과 선인장을 거쳐, 2013년경부터 뚜렷하고 선명한 숲, - 과거의 흐르듯 관망하는 대상이 아닌 - 실존하고 현전(現前)하는 거대한 숲이라는 테마를 다루게 된 이래로 그 작품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감이 자리잡게 된다. 손에 잡힐 듯한 과장된 눈속임의 환영이 아니라 냉철하고 명쾌한 숲의 모습이 물감을 매개하여 화면 속 자기 자리를 찾아간 듯한 논리적 현실이다. 실제의 숲도, 굳어버린 물감도 아닌 제3의 새로운 현실이 관객의 망막과 거래하듯 작품 표면에 맺혔다 사라지고 또 움긴 시선 끝에 비쳤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작품 앞에 선 사람은 시각이 받아들이는 환영에 설득당하고 싶은 유혹과 헤아릴 수 없이 까마득한 수의 붓자국들이 정보로 지각되어 견제하면서 아득한 숲과 숲 속에 서있었을 작가의 시선, 그리고 작업실에서 보낸 작가의 시간이 동시에 호소하며 압도하는 듯한 환각에 휩싸인다.

마치 가상현실(VR)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벽처럼 납작한 화면 속으로부터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을 시각과 감수성이 비슷한 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19세기 경험적 사실주의(empirical realism)로 불렸던 인상파 화가들은 감각(sensation)에의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광호의 경우 그런 변수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경험은 관객의 몫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단호한 화면내의 논리에 따라 균질적으로 경험의 테두리를 결정짓는다. 무성히 우거진 숲이 그렇듯 거역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엄격한 질서가 우선되고, 우리에게서 작가가 그의 시각과 작업의 고통으로 제공하는 경험만이 허락될 뿐이다.

4년전의 국제화랑에서의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스스로의 시각과의 싸움임을 명확히 했다. 그의 눈은 어떻게 보일 것이다, 또는 이렇게 보여야 마땅하다라는 학습된 지식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 것이다. 작품 속에는 그가 볼 수 있는 범위와 그려내는 화면위의 좌표사이의 거래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지를 상징 또는 추상화시키지 않아 왔으며, 대상을 정하면 캔버스의 모든 표면이 이 장면을 위해 존재하도록 강요해왔다. 꽃자왈의 가시덤불 숲을 그린다는 것은 광기어린 새엄마가 신데렐라에게 시킨 불가능한 심부름 같지만, 이광호의 경우 그것이 스스로에게 가한 과제였으며, 덤덤히 하루 8시간이상 자리에 앉아 문제를 해결해 갔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25년의 숙련, 그리고 그의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밤의 꽃자왈을 그린 작품을 전시한 2층 전시장을 어둡게 설정했을 때, 작가가 갖는 화면과 현실과의 관계는 한 층 더 명확해졌다. 해가 저서 어두워지면 눈앞의 장면도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기 힘든 현실이 있는 것이다.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 단 그 칠획과의 싸움을 그는 포기하지 않을 뿐이다. 존재를 인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그릴 수도 안 그릴 수도 없다. 딜레마가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의 투쟁은 감정이 개입된다. 칠획 속에서 어두운 공포를 동반하고, 공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야 한다는 작가의 부담감은 심리를 자극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두운 숲 속에 투영되면서, 그 숲은 단순히 초월적일 뿐 아니라 깊고 침통하며 결코 밑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절망으로 유인한다. 동시에 관객은 작가의 시선 뿐 아니라 납덩이를 삼킨 듯한 마음까지 공유하게 된다.

2016년 이후의 신작들은 이전 작품들에 비해 밝고 몽환적이며 조금씩 서술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신작들은 주로 뉴질랜드의 초원과 늪(wetland)을 배경으로 한 작업들로, 숲이라는 공간의 부피(높이와 깊이)를 보장받았던 꽃자왈과는 사뭇 다르게 주로 수평적인 광대한 평면지형을 어떻게 구획 짓는가 라는 도전이 함께 한다. 일견 개방적인 구도가 전개될 듯 하지만, 전체 작품군에서 하늘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결코 높지 않다. 시선은 눈 높이나 그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이다. 작가는 또 다시 원시적 풍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뉴질랜드 지형의 특성이기도 한 늪지대는 거의 항상 화면 꼭대기까지 캔버스 전체에 가득 차게 묘사되어 있다. 노랑부터 보랏빛까지의 다양한 이름 모를 화초들이 흐드러져 영킨 생태계는 늪이라고 부르기에 과하게 화려한 눈에 익지 않은 선명한 빛깔의 조합이 생경하게 느껴진다. 도무지 구조를 알 수 없는 알록달록한 육지의 조각들은 혼란스럽게 수면을 가르거나 에워싸면서 피난처 없는 우리의 시선이 핀볼의 은빛 구슬처럼 화면의 구석까지 골고루 도달했다 튕겨 나와 또 다시 미끄러져 반사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는 중에도 곳곳의 수면의 경계, 수풀의 반사와 노이즈처럼 퍼진 가늘고 긴 수초의 그림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현실감(verisimilitude)의 닳처럼 순간적으로 사실주의적 초점을 맞추면서 현장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늪 외의 대상들은 밝은 황갈색의 초원에서 펼쳐지는 풍경들로, 바닥을 뒤덮는 터석(tussock)이라는 자생식물의 길고 가는 황금빛 줄기들이 주는 혼미(昏迷)한 인상이 특징적이다. 가끔씩 하늘도 비추고 멀리 있는 장대한 산세도 원근을 느끼게 하여, 수평한 수면이 수직의 화면과 일치하는 내려다보는 구도의 늪에 비해 우리와 풍경을 각각 객관화 시키면서 창밖을 내다 보는 듯한 관망을 가능하게 한다. 산을 관망하는 주체는 하나 더 있는데, 초원을 그린 과반수의 작품 속에는 풍경을 주관하는 땡이 한 마리씩 그려져 있다. 이는 얼핏 인위적으로 더해진 장식적 허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현실 속에 위치했던 경험적 존재이며, 실존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단 땡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는 작품을 바라보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경 속 현실에 가깝게 속해 있는 주인공인 것이다.

부득이하게도 화면 속에 응크리는 땡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화면은 땡과의 관계성을 산정하게 된다. 화면상의 위치, 크기, 색조 다음에는 의미, 상징성, 타당성 등 갑작스럽게 풍경은 자연이라는 현실과의 관계보다도 압도적으로 땡과의 관계를 통해 읽히게 된다. 단, 땡의 이미지 외에는 그 어떤 부수적인 설명도 주어지지 않기에, 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조류는 과거부터 사람들의 여러가지 욕망의 투영의 대상이 되어왔다. 평화, 행운, 액운, 금술 등 친숙한 듯 하면서도 금세 날아가 버리는 새들에 대한 인간의 신비감과 이로 인한 기대치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땡에 대해 민속학적 풀이에서부터 수렵의 역사 등등 무궁무진한 호기심이 자극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 화면속에 주어진 시각적 진실성(integrity)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호기심이 충족될 수 있을지 어려운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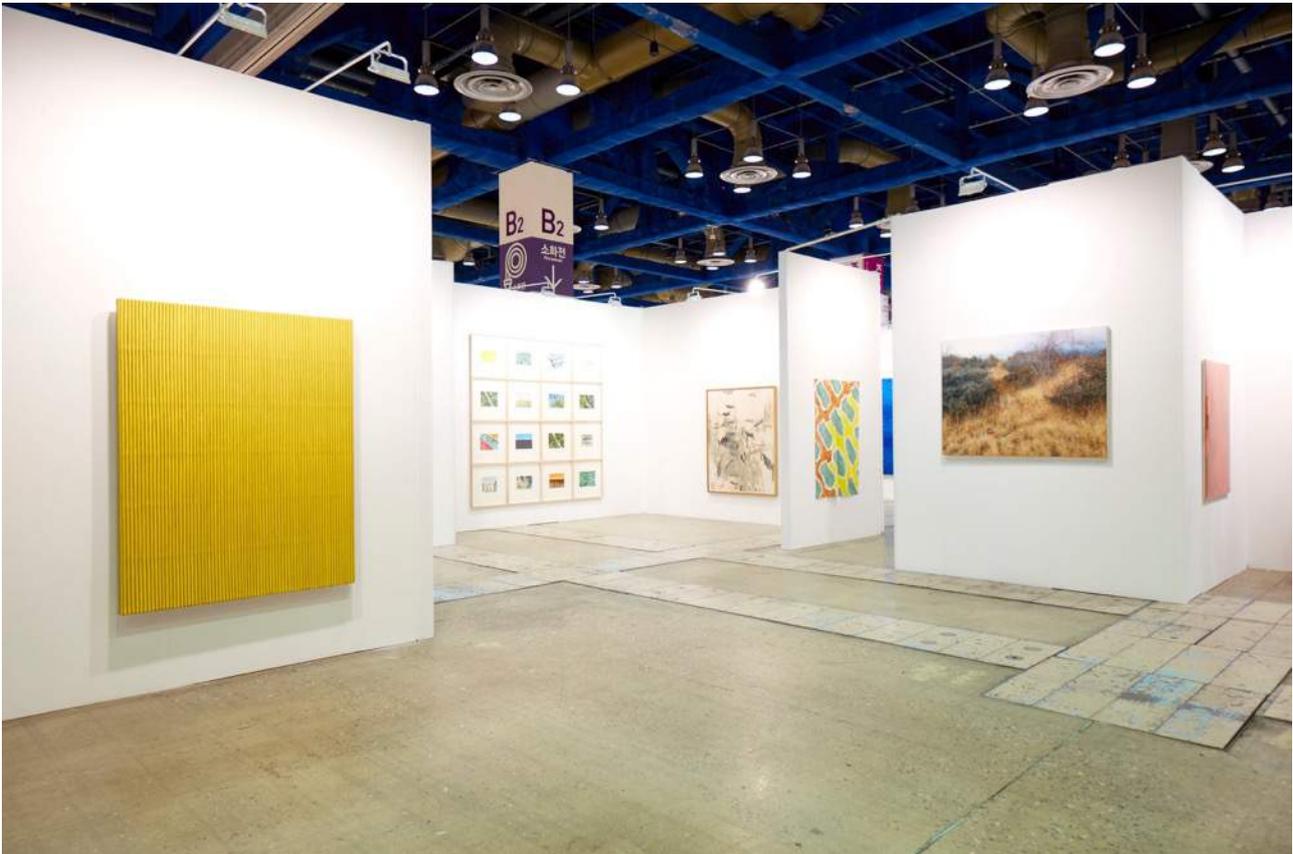
프로이드는 미술사학자는 아니었지만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그림들 중 가장 살가운 성가족(聖家族)의 표현인 '성모자와 성안나 The Virgin and Child with Saint Anne' 속에 숨겨진 새의 도상에 대해 장황한 글을 발표한바 있다. 그가 특기로 하는 꿈이야기에 바탕 한 심리분석에 따르면, 작품에 어렴풋이 비추는 새는 다빈치의 현재와 유년기, 어머니와 다빈치, 여성과 남성을 잇는 존재로 상징되어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이 성가족의 초상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미술사학자 마이어 사피로는 프로이드의 논점에 대해 다빈치의 어린시절의 꿈이야기의 신빙성에서부터 어머니를 상징한다는 새의 종류의 오역(誤譯)등 차례로 반박하며 마찬가지로 장황한 답글을 제시하였다. 아름다운 그림을 충분히 읽어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발단된 두명의 천재들의 일화는 정작 다 빈치 화면에 드러난 성안나와 성모, 아기 예수와 어린양의 성스러움과 소중함을 만끽할 기회를 앗아간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곁에 몇 점 남겨지지 않은 다 빈치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절정기 르네상스의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깊은 애정과 수학적 이성이 살아있는 기적과도 같은 장면임에도 이제는 화면 속에 갇힌 푸른색의 새부리와 꺾인 날개가 먼저 눈에 뜨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역시 이광호 화면속에 등장하기 시작한 한 마리 땡에 대해 그 색이나 성별, 상징이나 역할 및 작가의 유년기 이야기를 파헤치는 것이 작가를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관객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하다. 단, 꽃자왈의 비가시성을 그려내기 위해 보이지 않음을 묘사하고, 보이지 않는 환경을 정확하게 구현해낸 작가이기에, 일부 배경에 잠식되어 있으면서도 선명하게 가시화된 땡의 존재는 그가 그려내는 가시덤불이나 수초만큼이나 진실된 존재일 것으로 상상된다. 생태학이나 생물학적 진실은 아닐 수 있으나, 작가에게는 절실한 심리적 진실이라고 할까. 땡이 있는 풍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연된 현시(顯示)욕구의 발현이자 곧 다가올 비약을 위해 사면초가의 숲으로부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 풍경의 주재(主宰)자이다.

/ 'Botanica' 부산시립미술관 Installation view - 2018. 8. 24 - 2019. 2. 17



/ 키아프 2017 - Booth view (조현화랑) / 2017. 9. 20 - 9. 24



/아트센터럴 홍콩 2016 Solo show/ 2016. 4. 20 - 4. 29



/ '환영과 환상' 국립현대미술관 Installation view - 2015. 2.10 - 5.17



/ Touch' 조현화랑 Installation view - 2011. 9. 3 - 10. 2



학력

- 19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8 조현화랑, 부산
- 2014 그림 풍경, 국제갤러리, 서울
- 2012 어루만지다, 갤러리소소, 경기도
- 2011 Touch, 조현화랑, 부산
- 2010 Touch, 국제갤러리, 서울
- 2008 대구MBC 갤러리M, 대구
- 2006 Inter-View in Changdong, 창동스튜디오갤러리, 서울
- 2003 주석달기, 한전플라자갤러리, 서울
- 2002 이중간첩, 갤러리인 데코, 서울
- 2001 갤러리인 데코, 서울
- 1996 갤러리보다, 서울

그룹전

- 2018 보태니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현대미술사전 7키워드,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 2017 멘토와 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Neo-naturalism, 일우스페이스, 서울
보통만큼의 빛과 공기, 예술의 기쁨 미술관, 서울
畫畫-반려·교감, 세종미술관, 서울
- 2016 재현을 넘어-극사실 세계와 만나다, 오승우 미술관, 무안
A7전, 갤러리 이마주, 서울
자연, 그 안에 있다, 뮤지엄 산, 원주
- 2016 알마마타 II,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 2015 같으면서 다른, space bm, 서울
리얼리즘 인터페이스, 석당미술관, 부산
환영과 환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심안으로 본 타자, 갤러리 룩스, 서울
코리아 투모로우2015, 성곡미술관, 서울
세븐 사이즈, 박수근미술관, 양구
- 2015 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갤러리3, 서울
- 2014 Royal Jelly, 갤러리 로얄, 서울
- 2013 한국미술의 발자취, 서울대 미술관, 서울
사적 공간에 거주하기, 아뜰리에 아키, 서울
Ways of seeing, LIG 아트스페이스, 서울
암마 엄마!, 인도 국제교류센터, 뉴델리, 인도
리얼리티, 재현과 자율 사이, 경남도립미술관, 경남
정물화(Still Life): 30인의 정물, CSP111아트스페이스, 서울
Made in Hands 작가정신II -정물, 갤러리 세인, 서울

- 달빛 아래의 대화, 조현화랑 부산, 부산
 잠시동안, 인간, 문화공장오산, 오산
- 2012 코리안 아이, 사치 갤러리, 런던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 이상과 허상에 꽃피다,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한국의 그림-매너에 관하여, 하이트 컬렉션, 서울
 shift, 조현화랑, 부산
 Im/Pulse to See, 갤러리 101, 서울
- 2011 2011 서울미술대전, 극사실화-눈을 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기억의 미래를 좇는 사람들, 가나아트센터, 서울
 추상하라!, 덕수궁미술관, 서울
 FICTION & NONFICTION, 인터알리아, 서울
 shift, 조현화랑, 서울
- 2010 본능적으로, 갤러리 소소, 헤이리
 방어기제, TN 갤러리, 베이징, 중국
 Biennale+ one - 'Why Korea Contemporary art Now, Space zoo, 광주
 동방의 등불, atelier aki, 서울 & 국립미술전시관, Chennai, 인도
 Shift, 조현화랑, 서울
 부산비엔날레 Now Asian Artist, 부산시청 전시실, 부산
 극사실주의 화가들, 현대예술관 미술관, 울산
- 2009 프라하 비엔날레, 체코, 프라하
 풍경화 아닌 풍경, 포천아트벨리, 포천
- 2008 현실과 초상, 자하미술관, 서울
 정형에 도전하다 - 정물, 초상, 풍경, 인터알리아, 서울
 현대작가 55인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Reality in Contemporary Art, 사이아트갤러리, 서울
- 2007 회화에 대하여, 국제갤러리, 서울
 Video Killed the Painting Star, Domus Artium 2002 Salamanca, 스페인
 공통경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A Complex, 성곡미술관, 서울
 유클리드의 산책,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상상충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리얼리즘 회화의 정신, 사이아트갤러리, 서울
 창과 빛, 인사아트센터, 서울
 감염된 인물, 대원갤러리, 서울
- 2006 Castellon 국제회화 공모전 선정 작가전, Museo de Castellon, 카스텔론, 스페인
 신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풍경과 사람, 더뉴게이트이스트, 서울
 Propose 7, 금호미술관, 서울
 여섯 개 방의 진실, 사비나미술관, 서울
 우리시대의 얼굴,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중앙미술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천사, 갤러리정, 서울

- 2005 류용문, 이광호, 스페이스사디, 서울
시각서사, 사비나미술관, 서울
풍경을 보는 눈, 인천 신세계갤러리, 인천
일기읽기, 갤러리 우덕, 서울
서울판화 2005, 토포하우스갤러리, 서울
- 2004 샘, 마이아트갤러리, 서울
- 2003 재현의 빈 곳, 인천신세계갤러리, 인천
트릭,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가족, 인천신세계갤러리, 인천
- 2002 천개의 눈, 천개의 길, 덕원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2002,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미스터리, 사비나미술관, 서울
송은 미술대상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시각과 형상, 인천신세계갤러리, 인천
- 2001 젊은 창작- 보는 것, 보이는 것,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 2000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 갤러리사비나, 서울
수렴과 발산, 인천신세계갤러리, 인천
- 1999 그리기/그림, 덕원갤러리, 서울
류용문, 이광호, 김형관, 서남미술관, 서울
석사논문 졸업전, 서울대박물관, 서울
- 1998 회화술, 덕원 갤러리, 서울
- 1997 Inter-View, 덕원갤러리, 서울
300개의 공간, 갤러리윤, 서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동경예술대학 판화 교류전, 동경예대자료관, 동경, 일본
예술가의 정치적 생존, 갤러리보다, 서울
- 1996 판의 언어, 갤러리보다, 서울
D-22 / 정치밖의 정치, 갤러리보다, 서울
내일의 판화, 단성갤러리, 서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동경예술대학 판화 교류전, 서울미대전시실, 서울
- 199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동경예술대학 드로잉 교류전, 동경예대자료관, 동경, 일본
한국현대판화공모전, 동방플라자갤러리, 서울
- 1994 수렴과 발산, 인천시민회관, 인천

레지던스 & 수상

- 2006 제3회 Castellon 국제회화 공모전 후보자 선정, 스페인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 인기작가상, 예술의 전당, 서울
- 2005-2006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과천
- 20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 전시기금, 서울
- 1995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우수상,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삼성미술관 리움, 제주도립미술관, 포스코